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이 17일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메인미디어센터(MMC) 프레스 컨퍼런스홀에서 국내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쇼트트랙 여자 1500m 최민정

## “이번 올림픽 금메달이 딴 메달 중 가장 값져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빙상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우승한 최민정(성남시청)이 “제가 지금까지 딴 메달 중에서 이번 대회 금메달이 가장 값진 메달”이라고 말했다.

최민정은 17일 중국 베이징 시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인 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해 “어제 우승하고 나서는 대회 기간도 길어서인지 실감이 잘 나지 않았다”며 “숙소에 가서 축하 연락을 많이 받고 감정 정리를 하면서 어제 하루를 보냈다”고 밝혔다.

1,000m와 3,000m 계주 은메달을 따고 1,500m 금메달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한 최민정은 “대회 초반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점점 성적이 좋아졌다”며 “선수들이 힘들게 준비한 만큼 이겨내려는 의지가 강했고, 또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는 힘이 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보람이 있었다”며 “외국에서 애국가를 듣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마지막에 애국가를 듣게 돼 기뻐했다”고 덧붙였다.

대회를 치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1,000m 때”를 꼽은 최민정은 “그 힘든 순간을 잘 이겨내서 1,500m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최민정은 1,000m 은메달을 따낸 뒤 ‘폭풍 오열’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눈물을 쏟아냈다.

주위에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심석희와 충돌해 넘어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는 추측도 나왔다.

개막전만 하더라도 ‘역대 올림픽 쇼트트랙 대표팀 사상 최악체’라는 평을 들었던 것에 대해서는 “주전 선수들이 빠져 주위 우려가 컸지만 선수들의 의지가 강했다. 저도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면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며 오기가 생겼다고 털어놨다.

최민정은 “2018년 평창과 개인 종목 우승자가 최민정, 아리아나 폰타나, 쉬자나 스텔링으로 같다”는 지적에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선수들과 경쟁을 오래 한다는 것은 저도 성장할 좋은 기회”라며 “이런 경쟁자들이 저를 더 성장하게 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회 여자부 전 종목에서 올림픽 기록이 바뀌었는데 그만큼 선수들의 스피드가 전체적으로 빨라졌다는 의미”라며 “저도 파워를 키우는 훈련을 더 많이 하고, 부상 관리도 잘하면서 전체적인 훈련량을 늘려야 한다”고 올림픽 이후를 대비했다.

이번 대회 자신의 점수를 100점 만점에 70점으로 평가한 그는 “내일 귀국하면 집밥을 먹고, 가족들과 강아지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7일 중국 베이징 국립 아쿠아틱 센터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컬링 여자 단체전 한국과 스웨덴의 경기에서 팀킴 김은정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자 컬링, 스웨덴에 져 4승5패 ...4강 진출 실패

한국 여자 컬링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달을 향한 도전을 멈췄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낸 한국 여자 컬링은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후보로 국민적인 기대를 모았으나 스웨덴에 탈미를 잡혀 4강 행이 좌절됐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샷 미스가 나오면서 풀리그 경기 내내 불안한 승부를 펼쳤다.

한국 컬링 여자 국가대표팀 김(김은정·김경애·김선영·김초희·김영미)은 17일 중국 베이징의 국립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컬링 여자부 풀리그 9차전 스웨덴과 경기에서

4-8로 졌다.

4승 5패가 된 한국은 10개 참가국 가운데 상위 4개 나라가 나가는 4강 진출이 좌절됐다.

스위스가 8승 1패로 1위, 스웨덴 7승 2패로 2위에 올랐고 나란히 5승 4패인 영국, 일본, 캐나다 가운데 드로 샷 챌린지(Draw Shot Challenge·DSC) 규정에서 앞선 영국과 일본이 3, 4위로 4강에 진출했다.

드로 샷 챌린지는 매 경기 시작 전 각 팀 선수 2명이 한 번씩 스톤을 던져 하우스 한가운데인 ‘티’와 거리를 재는데 이 측정값을 더해 평균이 적은 팀이 상위에 오르는 규정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은메달을 획득했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4강 진출에 실패하며 2026년 동계올림픽을 기약하게 됐다.

4승 5패로 대회를 마친 한국은 미국, 중국과 함께 공동 6위가 됐다.

한국은 전날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4강의 불씨를 살렸다.

지난 16일 중국 베이징의 국립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풀리그 8차전에서 덴마크에 8-7 역전승을 거뒀다.

한국은 이날 덴마크를 상대로 9엔드까지 6-7로 끌려갔지만, 마지막 10엔드에서 2점을 추가해 승부를 뒤집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이 16일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결승에서 은메달을 확정된 뒤 태극기를 들고 링크를 돌고 있다. /연합뉴스

##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집념의 은메달

### 박장혁·곽윤기·이준서·황대헌 밴쿠버 이후 12년 만의 메달

한국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5,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황대헌(강원도청), 이준서(한국체대), 박장혁(스포츠토토), 곽윤기(고양시청)로 구성된 쇼트트랙 남자대표팀은 16일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0m 결승에서 6분41초679의 기록으로 캐나다(6분41초257)에 이어 2위를 차지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이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계주에서 메달을 딴 건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은메달 이후 12년 만이다.

준결승에서 댜 김동욱(스포츠토토)도 메달을 받는다.

한국은 박장혁·곽윤기·이준서·황대헌의 순서로 레이스를 이어갔다.

한국은 박장혁이 출발선부터 선두로 치고 나선 뒤 결승선을 18바퀴 남길 때까지 맨 앞자리를 지키며 레이스를 펼쳤다.

하지만 곽윤기에서 이준서로 순서가 넘어갈 때 잠시 주춤한 한국은 캐나다에 선두 자리를 빼앗겼다.

이후 한국은 캐나다를 따라잡기 위해 치열한 선두 싸움을 이어갔다.

경기는 결승선을 11바퀴 남기고 더 치열해졌다.

캐나다가 스피드를 더욱 높였고, 한국의 뒤를 따르던 중국이 넘어지는 복잡한 상황이 이어졌다.

한국은 캐나다의 뒤를 바짝 따라붙으며 역전을 노렸지만 아쉽게도 격차는 조금씩 벌어졌다.

최종 주자를 맡은 ‘말행’ 곽윤기가 이를 악물고 캐나다의 마지막 주자 뒤를 쫓아가 봤지만 끝내 역전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연합뉴스